

광양시 인구 3년 연속 증가...인구정책 빛났다

전남도 평가서 5년 연속 수상
인터넷 강의 지원 등 높은 점수
2022년부터 인구 4061명 늘어

광양시는 2024년도 전라남도 인구정책 평가에서 '우수상'을 차지하며 2020년부터 5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달성했다고 29일 밝혔다.

광양시가 전라남도 인구정책평가에서 5년 연속 우수상을 차지했다.

인구정책 평가는 인구문제 극복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전남도가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평가다.

평가는 1차 서면 평가(60%)와 2차 발표평가(40%)를 통해 최종 8개 시군을 선정한다. 순위를 결정했다.

이번 평가에서 광양시는 고등학생 메이저 인터넷 강의 지원사업과 24시간 광양형 어린이집 운영 사업 등이 높은 점수를 획득해 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로써 광양시는 지난 2020년부터 5년 연속 우수상을 획득하고 있으며, 명실상부한 인구정책 우수 지자체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고등학생 메이저 인터넷 강의 지원사업은 관내



광양형 24시간 돌봄 어린이집.

고등학생에게 메가스터디, 대상마이맥, 이투스 3개의 대형 인터넷 강의 업체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고, 저소득층 학생에게 수강료 100%, 그 외 학생은 수강료 8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광양시가 전남 최초로 시행한 인터넷 강의 지원 사업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낮추고 학생들의 학

력 신장에 도움을 줬다는 점에서 학부모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우수 신규사업이다.

24시간 광양형 어린이집 운영사업은 지난 7월부터 시행한 신규사업이다. 광양시는 긴급돌봄이 필요한 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4시간 어린이집 2개소를(광양읍 슬기어린이집, 중마동 쫄나무

어린이집) 운영 중이다.

출근, 출장 등의 이유로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용 24시간 전까지 전화로 사전 예약하면 이용할 수 있다. 이용 대상은 6개월부터 취학 전 영·유아로 평일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용료는 시간당 2,000원이다.

24시간 광양형 어린이집은 긴급돌봄이 필요한 부모의 양육 부담을 해소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보육환경,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조성함으로써 저출산 극복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인구정책 평가에서 우수시책으로 평가받았다.

한편 인구정책 등의 성과에 힘입어 광양시 인구는 2022년부터 3년 연속 증가추세로 올해 11월 말까지 4061명이 증가했고, 특히 취업적령기의 27세부터 34세 청년이 증가 인구수의 50% 이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광양시는 임신·출산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구시책을 통해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하고 있으며 평생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다. 전남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광양시 우수시책이 타 지자체로 점차 확산돼 저출생 극복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구례오리협회 훈제 오리·치킨 기부



구례오리협회가 지난 23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총 1500만원 상당의 훈제 오리 및 훈제 치킨을 구례군에 기부했다.

구례군은 이날 구례군청에서 김순호 구례군수와 한정호 구례오리협회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달식을 가졌다. 구례오리협회는 매년 오리고기 기부를 통해 나눔 문화 확산과 지역사회와의 상생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이날 한정호 구례오리협회장은 "추운 날씨에 흑독한 겨울을 나고 있을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자 기부 활동에 동참했다"며 "앞으로도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꾸준한 나눔 활동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강진 주작산 자연휴양림 울 숙박객 전년비 30% 증가

강진군은 신전면에 있는 주작산 자연휴양림이 올해 숙박 이용객이 전년 대비 30% 증가했다고 29일 밝혔다.

강진군에 따르면 관광 명소로 자리 잡은 주작산 자연휴양림의 숙박료 수입은 작년 3억원에서 올해 4억원으로 약 1억원이 증가했다.

주작산은 봉황이 날개를 펼친 듯한 웅장한 산세와 봄철 만개하는 진달래 군락으로 유명하다. 이 명소는 수많은 사진작가와 등산객을 매료시키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각광받고 있다.

169ha에 달하는 넓은 공간을 자랑하는 주작산 자연휴양림은 숲속의 집 24동과 휴양관 10동을 비롯해 야영 데크장, 세미나실, 등산로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어 가족 단위 여행객들에게 편안한 쉼터를 제공한다.

올해 휴양림은 '임(林)과 함께 3일 살기' 프로그램, 장애인·다동이 가장 강진군민을 대상으로 한 할인 행사, '밤잠여행' 이벤트 등 다양한 할인 혜택과 평일 이용 활성화 정책으로 방문객들의 호응을 이끌어 냈다.

강진군은 내년에 휴양림 내 시설 10개소에 대한 리모델링과 산림레포츠 시설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주작산 자연휴양림은 자연 환경을 활용한 성공적인 관광 사례로 자리 잡았다"며 "시설 개선과 체험 프로그램 개발로 강진이 더욱 매력적인 관광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순천시 버스터미널 주변 스마트 교통시스템 구축

순천시가 장전동 버스터미널 주변에 지역 최초로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과 무단횡단방지 시스템을 구축했다.

순천시는 버스터미널 주변의 도시재생 구역에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두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은 인공지능(AI) 기반의 영상 분석기술을 활용하여 교통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보행자와 차량에 알람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버스터미널 주변 8곳에 설치되는 이 시스템은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보행자 횡단 및 정지선 위반 차량에 대한 정보를 전광판과 스피커를 통해 안내한다.

또한 무단횡단방지 시스템은 팔마로 일대에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CCTV로 보행자를 감지하여 LED 전광판에 '보행자 주의'라는 문구를 띄우는 시스템으로 터미널 주변 4곳에 설치된다.

두 시스템은 기존 교통신호등 지주를 활용한 통합 지주 형태로 설치되어,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함과 동시에 도시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설계됐다. 두 시스템은 보행자의 안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

신안군 수백 년 당산나무 뿌리 속 무심사지 터 확인

흑산도 현장서 현장자문위원회의 건물터·계단지·석렬 등 발굴

신안군이 흑산도 무심사지 7차 발굴조사에 대한 현장자문위원회를 최근 발굴 현장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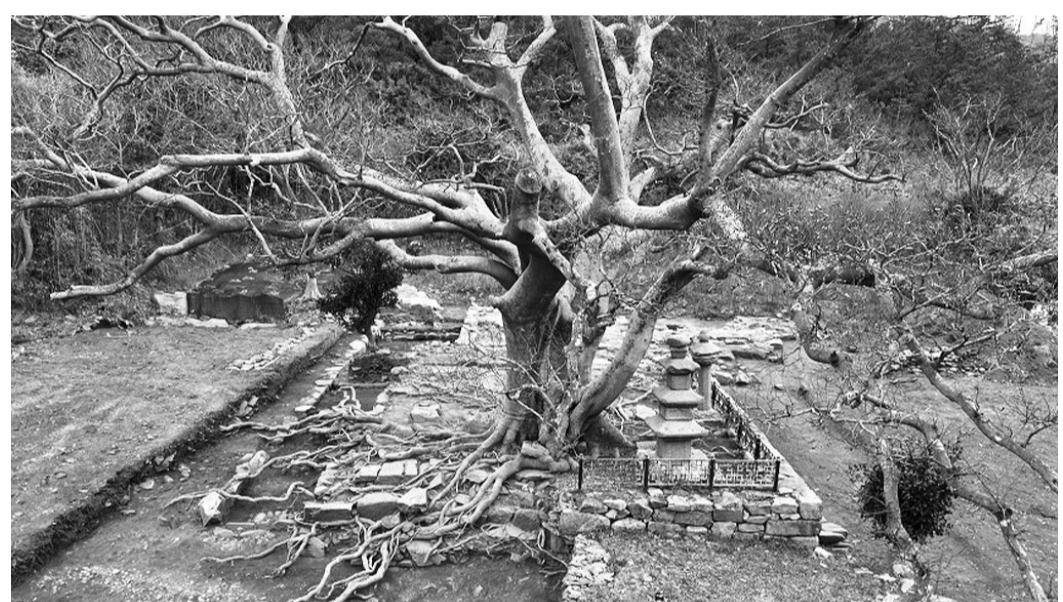
흑산도 무심사지는 상라산 동쪽 기슭에 위치하며, 창건연대와 폐사 시기는 알려지지 않다. 삼층 석탑과 석등이 남아있으며, 2000년 무렵 지표조사로 통해 '무심사선원(無心寺禪院)'명 기와편이 확인됐다.

이번 자문위에서는 전국의 절터에 대해 수많은 발굴조사를 수행한 (재)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호암 스님)의 조사를 통해 기존 발굴조사에서 제외된 당산나무인 팽나무 주변의 중심권역에 대한 정밀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 무심사선원 불전으로 추정되는 건물지는 높은 기단과 전면에 축대를 갖추고, 이와 관련된 계단지, 담장지, 석렬 등이 확인됐다.

특히 건물지는 2동의 방형건물지가 연결된凸字形을 이루며, 통일신라시대 조성된 이후 3시기에 걸친 중·개축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했다. 출토 유물은 '중원갑진년육월조(中元甲辰年六月造)'명(1244년) 귀목문 암막새편, 연화문 막새편, 삼강정자편, 해무리굽 정자편 등이다.

이번 발굴조사는 무심사지 아래 음동마을사람들이 오랜 세월 당제를 지내왔던 당산나무의 보호



흑산도 무심사지 발굴조사 현장 전경.

를 위해 초겨울에 발굴을 시작해 수목의 생육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뿌리 하부의 건물지, 초석 등을 확인하는 작업도 있었다. 조사 완료 후 노출된 팽나무 뿌리 등은 곧바로 약제처리와 복토가 이루어졌다.

흑산도는 엔닌(圓仁)의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와 서경의 '고려도경(高麗圖經)'에 중국 사신을 맞이하는 흑산도의 관사와 봉수대가 언급되어 있다. 또한 무심사지 주변 상라산성, 제사터, 관사터 발굴조사에서는 중국제 동

전과 도자기가 다수 확인되어 통일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동아시아 남북항로의 해상무역 거점항으로 알려져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통일신라시대에 조성된 무심사지와 인접한 관사터 등 불교 유적과 동아시아 교역의 거점 흑산도의 위상을 복원할 중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며 "향후 흑산관광 개통을 대비한 핵심 문화관광 자원으로 조성해 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가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경찰청 | 금융감독원 |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깎아먹는
기생충이
되지마세요!**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 군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사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도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꾼 브로커